

전남도, 미래 인재 지속 투자 '눈길'

예체능 등 으뜸인재 70명 모집...연 최대 600만원 지원 청소년 직접 기획 '어울림마당' 올해 8차례 개최 예정

전남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으뜸인재 70명을 발굴해 인재증서를 수여하고, 연간 최대 600만 원의 재능개발비를 지원한다. 문화예술·스포츠·역사 등을 소재로 청소년들이 공연, 경연, 전시, 놀이, 부스 운영 등 직접 기획해 운영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도 지난 13일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을 시작으로 올해 8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으뜸인재 발굴대회는 전남도의 주역으로 성장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작해 5년 동안 411명을 선발했다.

전남도의 지원을 받은 인재들은 국가대표 선발을 비롯해 전국대회 입상, 논문 발표, 서적 출간, 특허 출원, 희망 대학 진학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는 미래 리더 분야로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

학, 마이스터 분야를, 예체능 리더 분야로 국악·실용음악, 클래식, 미술, 무용·연기·영상, 체육 분야로 나눠 선발한다.

모집 대상인 중·고등학생은 전남지역 재학생이며, 대학생은 전남 재학생이거나 전남에서 초·고등학교 중 하나를 졸업하고 타 시도 대학을 진학한 경우다. 14세부터 24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1차 서류심사로 기본역량, 전문성,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2차로 실기와 심층면접으로 치러진다.

참여 신청은 5월 10일까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오는 6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이에 대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도 올해 8차

레이어진다.

지난 13일 '전남 청소년, 우리 함께 날아 봄'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 첫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1부 개막식을 시작으로 2부 공연·놀이마당,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은 전남도 청소년 자치기구인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과 꿈드림 청소년단 위촉장 수여식, 주제 세리머니 등을 통해 미래 전남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응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개막식 이후 이어진 공연마당에서는 청소년들이 5팀이 참여해 통기타, 밴드 공연, 케이팝(K-POP) 댄스 등 청소년이 그동안 갖고 닦은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체험마당에서는 드론 조종 체험, 격정인형 만들기, 심리검사 등 체험·홍보 부스 31개 동을 운영해 청소년이 흥미를 느낄만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홍보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머리 맞대

다문화 지원 네트워크 협의회...교육청·시군 가족센터 등 참여

전남도가 지난 12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전남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 다문화 업무담당자, 가족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남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협의회에선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중장기 지원 및 유관기관 간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 이민정책 등에서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추진하는 등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신규 시책을 구상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광양·구

례 가족센터와 장성교육지원청이 우수사례를 발표,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전남도는 이달부터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산모도우미 양성교육 및 운영,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용 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전남의 다문화가정 가구 수는 1만5666세대(전국대비 3.9%·8위), 가구원 수는 5만1131명(도내 인구 2.8%)으로 전국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여성도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등을 포함해 총 1만3432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 서남부권 투자 유치 확대 팔 걷었다

시·군 협력 회의...기업 수요 맞는 산단 조성 등 지원 산단 활성화·지역특성화 업종 등 투자유치 확대 모색

전남도가 지난 12일 서남부권의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와 첨단·신성장산업, 지역특성화 업종 등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도·시·군 투자유치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목포, 나주를 중심으로 장흥, 영암, 함평, 영광 등 전남 서남부권 12개 시군 투자유치 담당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해 지난 투자유치 성과와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 자원을 연계한 투자유치 확대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목포 신항 해상풍력 배후단지,

나주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장흥 식품제조·가공기업, 강진 제2일반산단, 해남 화원산단 해상풍력기 자체, 영암 삼포지구 스마트도시, 무안 항공특화산업, 함평 빛그린국가산단, 영광 이(e)-모빌리티 클러스터, 완도 해양치유 레저리조트, 진도 군내일반산단, 신안 압해 농공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 관련 기업 유치 촉진 등을 위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남 서남부권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해상풍력개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신성장산업 성장 기반이 마련됐

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 가능성이 커 기업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곳이다.

이에 전남도는 분야별 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입주수요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서남부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오는 6월 서남부권 시군 중심으로 한 기업 대면 투자협약도 할 계획이다.

김대인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하다"며 "시·군의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양성 '온 힘'

도, 순천·여수 방문 역량 강화 교육...올해 22명 양성

전남도가 지난 12일 사회적경제 정책과 제도를 알리는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순천과 여수 일원에서 실시하는 등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양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전남에서 선정된 청년 활동가, 시·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사회적경제의 전반적 이해 및 지원 정책을 알리는 이론 교육과 우수 사회적기업인 ㈜쿠키아, ㈜달다쿠,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등 현장 교육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양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는 13명, 올해 4월 기준 20명의 청년 활동가를 양성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예비 사회적기업 컨설팅 등 분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활동가 양성 목표를 22명까지 늘리고, 활동비를 전남도 생활임금 수준인 시간당 1만1730원으로 인상했으며, 활동 분야를 사회적경제 행사 지원 및 현장체험, 기업 행정지원, 주민 교육 등 사회적경제 전반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활동가의 업무 역량 강화 및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을 위해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활동가·시군 간 우수사례 공유 및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도·시군 성과공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전남의 사회적경제가 더욱 발전하도록 청년 활동가의 많은 활약 바란다"며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아내는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해양수산과학관, 밥상에 오르는 꽃게류 전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여수 돌산읍 소재 해양수산과학관에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게류를 비롯해 새우류, 바닷가재 등 다양한 갑각류를 새롭게 전시한다.

전시 게류 중 꽃게와 민꽃게(돌게)는 찜, 탕, 계장 등으로 요리되는데, 맛이 좋아 대중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수산물이다. 털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애호가들 사이에서 게류 중 최고는 털게라고 입을 모아 얘기할 정도로 그 맛이 일품이다.

해양수산과학관은 가장 식탁에 오르는 친숙

한 생물의 신기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물이 대중에게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과학관이 지러나는 꿈나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미래 수산인재 배출의 시발점 역할을 하도록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어업인 소득 창출과 자원량 증대를 위해 꽃게 인공종자 생산 연구와 대량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주말엔 남도 장터로...토·일 유랑단 순회공연

전남도가 전남상인연합회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남도의 전통시장엔 항상 풍요가 흐른다'는 슬로건으로 '전라남도 장터 유랑단' 품물 순회공연을 펼친다.

장터 유랑단 품물 순회공연은 전남지역 예술단체들이 참여해 진행된다.

12일 함평 천지전통시장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장터 열리는 전통시장에서 광대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간 30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12일 지상파 방송 '6시 내고향'의 김중하 리포터가 특별출연하며, 전남도 스마트 전통시장 사업본부가 진행하는 유튜브 등을 통해 함평 천지전통시장의 특산물과 상인 이야기를 소개한다.

품물 순회공연이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